

음주에 대한 가치, 태도, 음주문화에 대한 연구

손애리*, 이상숙**

*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 전공, **시니어스타워 노인요양시설

■ 연구배경 및 목적

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적 특성이 알코올규제정책을 수립하기에 매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.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일반국민들에 대한 문화적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것임.

■ 연구방법

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전국으로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의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에서 만 19세 이상인 남녀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. 표집은 광역시와 특별로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표집하였으며, 대도시의 경우 구의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구를 선정하였다. 총 수거된 설문지는 569개였음.

■ 연구결과

음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8문항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“술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 준다”가 61.3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“회식이나 사회행사에 술이 있으면 좋다”가 57.8%, “가족의 대소사 모임에 술이 있으면 좋다”가 50.3%, “술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”가 47.6%의 순으로 응답하였다.

음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8문항 중 동의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“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”가 19.3%로 가장 낮았으며, 다음으로 “술잔을 돌려 마시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이다”가 28.1%, “술잔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는 행위이다”가 29.5%, “윗사람이 술을 권할 때 거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”가 39.5%로 응답하였다.

문제음주에 대한 인식결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항은 “사고와 폭력의 문제”가 77.5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“건강문제에 대한 생각”이 68.2%, “전반적인 음주문제에 대한 심각”이 65.9%, “가정의 문제에 대한 심각”이 60.1%, “경제손실의 문제”가 53.3%, “국가경쟁력의 문제”가 38.0%, “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”가 35.3%의 순으로 응답하였다.

■ 결론 및 제언

알코올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관대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, 음주에 대한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폐해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나, 국가나 지역사회에 대한 폐해인식은 낮은 편이다.

따라서 음주의 폐해에 대한인식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.